

Cecil Street Office Building

현대건설,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의 품격을 높인다

*Toward
Global
Top Tier*



Cecil Street, downtown of Singapore, is always packed with a lot of office workers and tourists. Here stands an office building constructed based on the efforts and passion of Hyundai E&C. The new building will accommodate the headquarters of the Frasers Property Group, along with F&B facilities and various rest areas. Hyundai E&C Today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which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despite various regulations of the city state and the short construction schedule.

▶ Continued on page 6,7

직장인과 관광객으로 언제나 붐비는 싱가포르의 도심 '세실 스트리트'. 이곳에 현대건설이 땅과 열정으로 쌓아 올린 오피스 빌딩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건설과 인연이 깊은 '프레이저스(Frasers)' 본사가 들어설 건물로, F&B 상업시설과 포디움 형식의 휴식 공간도 갖췄다. 각종 규제와 짧은 공기 등의 난제 속에서도 준공을 이룬 현장을 찾았다. ▶ 관련기사 6,7면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launched

Hyundai E&C gears up for strengthening its transparency and expertise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its CSR system in tandem with outside social contribution institutions.

Korea's primary builder held a ceremony to mark the establishment of the Hyundai E&C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in the head office, Seoul, on July 17. The foundation of the committee is expected to add effectiveness and public confidence to the CSR activities conducted by the builder by enabling it to gather extensive opinions from experts of all kinds of fields. The Hyundai E&C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plans to establish an advanced operation system through the sharing of opinions on local and professional fields; the sharing of plans and outcomes regarding social contribution; the analysis of social contribution performance system; the consultation about making contribution to outside institutions; and the training of social contribution trends. Meanwhile, Hyundai E&C will actively communicate with outside shareholders by opening a website at the end of this year to help users take a glance of the past and future of its CSR activities.



투명성·전문성 강화... 사회공헌 위원회 출범

현대건설이 전문 외부 사회공헌 기관과의 협업으로 사회공헌 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7월 17일 서울 계동 본사 사옥에서 '현대건설 사회공헌 위원회'의 출범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재원 관장, 플랜 한국위원회 이상주 대표이사, 아이들과미래 재단 김병기 실장, THE CSR 정세우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현대건설은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 사회공헌 위원회'는 ▶지역/전문 영역별 의견 공유 ▶사회공헌 계획·실적 공유 ▶사회공헌 성과 평가 ▶외부기관 기부 검토 자료 ▶사회공헌 트렌드 교육 등을 통해 발전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기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실무진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교육장학 전문NGO, 해외 사회공헌 전문기관, CSR 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 연말 CSR 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오픈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Proactive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increases competitiveness

Appointment ceremony for H-Patrol held on July 6

Our company sets out to realign our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and take a proactive action to provide better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Our company held a ceremony to appoint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experts, called H-Patrol, on July 6. The newly adopted H-Patrol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strengthening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with a focus on fields of construction where accidents frequently occur. As for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rnal experts on civil works, buildings, power plants, nuclear power and

power generation are selected to provide systematic solutions for construction sites. Construction schedule management puts emphasis on inspecting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ranging from winning orders to completing projects.

Our company plans to support for construction works with a high frequency of accidents; provide training programs about quality-related regulations and specifications; inspect quality; review the adequacy of construction periods in bidding documents;



help establish schedule plans in the early stage; and strengthen the detection of delay factors at construction sites. Our company will offer

proactive support so as to prevent construction schedule from being delayed and cut down on costs for repairing quality-related defects.

선제적 '품질·공정' 관리로 경쟁력 높인다

7월 6일, 품질·공정 H-Patrol 전문가 위촉식

우리 회사가 현장의 품질·공정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리 회사는 7월 6일 계동 본사에서 서상훈 구매본부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공정 H-Patrol 전문가 위촉식'을 했다.

새롭게 도입한 H-Patrol의 품질 부문은 토목·건축·플랜트·원자력·발전 분야의 사내 전문가를 선정해 공종별 특화된 현장에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공정 부문은 수주에서 준공까지 공정 전반을 점검 및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리 회사는 중점 관리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다발 공종 지원 ▶품질 법규/시방 교육 ▶품질 테마 점검 ▶입찰공기 적정성 검토 ▶초기현장 공정계획 수립 지원 ▶현장 지연요인 센싱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지원으로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품질

하자 보수 투입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한편 위촉식에서 서상훈 구매본부장은 "성과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기술봉사단 'H-CONTECH(에이치컨텍) 2기' 출범

우리 회사가 7월 6일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H-CONTECH 2기' 발대식을 했다.

현대건설의 'H'와 건설(Construction)·기술(Technology)의 이니셜을 딴 H-CONTECH은 건설업계 최초의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이다. 10명의 임직원과 35명의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된 이번 2기 봉사단은 8월 2일부터 12박13일간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우리 회사는 ▶베트남 현지 초·중학생 대상 교육봉사 ▶벽화 그리기 노력봉사 ▶문화공연 및 흥



보부스 운영 ▶현대건설 기술/공법 소개 '기술세미나'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H-CONTECH 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기술 교

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교육이나 빈곤, 물 부족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클린현관 개발

우리 회사가 주거 공간의 실내 출입구인 현관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H-클린현관(H-Entrance)'을 개발했다.

'H-클린현관'은 현관에 세탁실의 기능을 접목한 것으로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나뉜다. '분리형'은 오염물질의 집 안 유입을 방지한다. 주방의 급배수관을 현관 입구로 끌어와 콤팩트 세면대를 설치해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다. '통합형'은 오염물질의 차단에서 진일보해 원스톱으로 의류 세척 및 오염 제거를 할 수 있다. 특히 세탁 공간과 현관 사이에 '순간이동 세탁장'을 배치해 동선 효율성과 현관의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분양

우리 회사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한다.

이 지역에 첫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지하5층~지상 최고 36층, 4개 동(오피스텔 1개 동 포함) 규모로 아파트 256세대, 오피스텔 138실 등 총 394세대를 공급한다. 단지는 해안가에 인접해 있고, 많은 세대가 속초 바다 조망과 함께 실업산·청초호 등 속초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



다.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 비율이 92.9%에 달하고, 오피스텔 동에는 입주객을 위한 스카이 커뮤니티가 설치된다.

분양문의: 033-631-1136

2018 신입사원 러너 워크숍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새내기들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캠프통 아일랜드 캠프장에서 화합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7월 5, 6일 양일간 '2018 신입사원 러너 워크숍'을 실시했다. 영단어 'learner(학습자)'와 'Runner(달리는 사람)'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러너 워크숍'은 그간 실시해 온 '신입사원 수련대회'를 개편해 강연·간담회 중심의 행사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이 주인공이 되는 셀프 워크숍 ▶선배들과 함께 하는 인터랙션 워크숍 등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 관련기사4,5면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7기 시상식



현대자동차그룹이 7월 3일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해 H-온드림 7기 선정팀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를 개최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2012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초창기 사회적기업에 팀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12개월간의 창업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의 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발된 25개 7기 사회적기업 창업팀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가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에서 펼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및 비전을 담은 것으로 올해로 16번째 발간됐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가독성 향상과 정보의 선명한 전달을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겨진 색채와 보고서 색채로 구분해 발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 연혁을 통해 설립 초기부터 자동차를 넘어 삶의 동반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역사를 시기별로 정리했다.

현장부서 소식

힐스테이트 청계 준공



힐스테이트 청계 현장이 2015년 9월 착공 후 33개월 만인 6월 29일, 준공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청계는 지하3층~지상 30층 764세대 규모로 자연친화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2호선 신당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 10분, 강남권은 20분 내 접근 가능하다. 청계천 매화거리, 용두공원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은 물론이고 홀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현장 관계자는 "주변 APT 민원, 통공사 업체 공사 포기 등 공사 초기 내·외부 여건으로 공정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전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준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journey through the glorious Baekje Dynasty

July 14

The history of Baekje is considered essential in textbooks, as it was one of the three kingdoms that ruled the Korean soils along with its two rivals, Goguryeo and Silla (57 B.C.-935 A.D.). Yet, contrary to how its unique culture bloomed for centuries before it met its end, Baekje seems to be overshadowed by the dynasties that followed and took over the land. To shed light on the hidden beauties of Baekj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collaboration with numerous organizations and regional governments, held the "Baekje Cultural Heritage Week" for the first time from July 8 until 14. Part of the week of events was a two-day Baekje tour. The tour covers six Unesco world heritage locations.

Gongju (South Chungcheong) King Munju, the 22nd king of Baekje, moved the kingdom's capital after his father King Gaero was killed in a battle with Goguryeo, and Ungjin served as the kingdom's heart for some 60 years, until the 26th King Seong, the 26th king of Baekje, moved it to Sabi. Ungjin is now the city of Gongju, and Sabi has become Buyeo, both of which are located in South Chungcheong.

The city of Gongju is home to the tomb of King Muryeo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in Korean history. Often, ancient tombs have been robbed before being excavated by archeologists. But King Muryeong's tomb was hidden in a mountainous landscape safe from any scavengers.

For those who'd like a full traditional experience, it's worth spending a night at the Gongju Hanok Villag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hanok.gongju.go.kr.

Buyeo (South Chungcheong) King Seong sought to bring Baekje back to its former glory in the year 538 and moved the capital to current-day Buyeo, which was geographically more stable and



1 The Jeongnim Temple Site has a five-story stone pagoda and a restored version of the main hall, 2 One of the Ssangneung, or the twin tomb, is going through excavation for research, 3 King Muryeong's tomb, along with six others, was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in 2015, but it is closed off to the public.

also larger than Gongju. The biggest site to see in Buyeo starts with Busosanseong Fortress, along with the some 650 square meters of palace remains. The archaeological site is also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Mount Buso is also home to the famous Nakhwa Cliff, where a total of 3,000 servants are said to have jumped off of after hearing the news of the kingd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 Tang and Silla alliance.

The Buyeo course ends with a visit to the Jeongnim Temple Site, the biggest temple of Baekje's Sabi period. The five-story pagoda of the temple, which is listed as National Treasure No. 9, is one of the only two surviving pagodas from the Baekje period.

Iksan (North Jeolla) Although no written

records pin down if or when Baekje moved its capital to Iksan, the city houses royal palace remains, proving its status either as a secondary city that worked to aide the capital Sabi, or as an actual capital city. The Wanggung-ri Site is one of the two biggest Baekje remains in Korea, along with the Mireuk Temple Site, also in Iksan. The renovation of the pagoda took over 20 years and ended in June of this year. The pagoda is the oldest standing stone pagoda in Asia.

The Baekje tour ends at Seokbul Temple, where the Yeondong-ri Seated Stone Buddha is housed. The Yeondong-ri Buddha is the biggest and oldest free-standing stone Buddha in Korea.

By KOREA JOONGANG DAILY

North Korea sees a beautiful future ahead

July 11

The idea of grooming oneself with makeup and cosmetics had been considered a luxury out of reach for ordinary women in North Korea, but not anymore. The country's own beauty brands have stepped their game up, while global cosmetic brands have been spotted in Pyongyang.

During a visit to a cosmetics factory, Kim Jong-un reportedly compared the quality of North Korean products to foreign brands such as Lancome, Chanel and Shiseido, demanding for better goods in his own country. "Unhasu is popular, but don't stop there and

fight so that it can compete with other global brand products," said Kim.

The North Korean cosmetics market was calculated at \$72 million in 2016, a mere 0.6 perc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Cosmetics are still out of reach for the general public. Yet, with influential female figures high up in the regime and the country slowly opening its doors to the world, the market is expected to grow in the coming years. North Korea imported \$1.33 million worth of cosmetics in 2009. That number rose to \$11.4 million in 2014.

By KOREA JOONGANG DAILY



2018 KIA NIRO Earns Top Safety Pick Plus Rating

The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 has awarded its best rating possible, Top Safety Pick Plus (TSP), to the 2018 Kia Niro when equipped with available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FCWS) and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AEB) as well high-intensity discharge (HID) headlights. "The Niro is one of our most popular models," said Orth Hedrick, KMA, "and receiving the highest possible safety rating from IIHS provides yet another reason why it should be the top choice for a small hybrid SUV."



KMA, "and receiving the highest possible safety rating from IIHS provides yet another reason why it should be the top choice for a small hybrid SUV."

Hyundai Motor Group and Baidu Fortify Partnership

Hyundai Motor Group (Hyundai) and Baidu today announc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Internet of Vehicles (IoV), signaling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next-generation connected car technologies. The newly-signed MOU will see the existing partnership — between the world's fifth-largest auto-making group and the leading Chinese language Internet search provider — reinforced to



accelerate development of disruptive innovations in vehicle connectivity. As a first step, Hyundai and Baidu will co-develop a connected car service.

10 Minute Korean Lessons

At the airport



▶ Arrivals

Where can I take an express bus?

리무진 버스 어디에서 타요?
[Lee-moo-jeen baw-sseu aw-dee-saw tah-yo?](#)

You will see the bus stop if you go out Gate 11.

11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있어요.
[Shee-beel-bawn gay-ee-teu-ro nah-gah-sheemyuhn ee-ssaw-yo.](#)

▶ Other Expressions



Taxi

택시
[tehk-shee](#)



Subway

지하철
[jee-hah-chawl](#)



Domestic flight

국내선
[goong-neh-sawn](#)



International flight

국제선
[gook-jeh-sawn](#)



Airport railroad express

공항철도
[gong-hahng-chawl-ddo](#)



Bus bound for Gimpo Airport

김포공항 가는 버스
[geem-po gong-hahng gah-neun baw-sseu](#)

▶ Related Phrases

Where can I rent a car?

렌트카 어디에서 빌려요?
[Rehn-teu-kah aw-dee-saw beel-lyuh-yo?](#)

Where can I pick up my luggage?

짐 어디에서 찾아요?
[Jem aw-dee-saw chah-jah-yo?](#)

My luggage isn't here yet.

제 짐이 아직 안 나왔어요.
[Jeh jee-mee ah-jeek ahn nah-wah-ssaw-yo.](#)

Where can I buy a SIM card?

심카드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Seem-kah-deu aw-dee-saw sahl soo ee-ssaw-yo?](#)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2018 신입사원 러너 워크숍'이 지난 5일부터 7박2일간 진행됐다. 워크숍 테마인 '러너'는 학습자를 뜻하는 'Learner'와 질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Runner'의 중의적 표현이다. 신입사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선배 직원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고, 동기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글=박현익 / 사진=한정규

Learn and Run! Turn your passion into driving force

The Newcomer Learner @ Runner Workshop 2018 was held for two days from July 5. This year's workshop had two keywords of "learners" who learn by experiences and advices of seniors and "runners" who are determined to make new changes and run for the future.

Starting with "Conversation with CEO," the workshop kickedstart on July 4. In a special lecture by CEO Park Dong-wook, he asked on the newcomers to change ways of working on their own, actively develop themselves and be competitive.

On July 5, a total of 51 new employees of Hyundai E&C arrived at Tong Island Camp, located in Gapyeong, Gyeonggi-do, to participate in the two-day workshop.

This year's workshop was unveiled with the "Rookies' Film Festival". Under the theme named "All the Roads Ahead of Us," the participants, divided into three teams, were in charge of planning, writing scenarios, producing, filming and acting to create 10-minute short films.

Firstly, *Now, Are You Happy?* was shown. Team 3 tried to make an emotional appeal by talking about the troubles all the employees may struggle to deal with while working at the company, and the significance of making decisions without regrets.

The second movie played, made by Team 2, was *Gray Zone* showing an employee trying to take on his duties in contrast to his colleagues shifting responsibilities onto others.

Finally, *HDEC Signal*, created by Team 1, won the prize. In the parody film of *Signal*, one of the most popular TV dramas aired in 2016, a new employee in the present communicates with a newcomer in the

past through a mysterious walkie-talkie he picked up in a construction site.

What was special about this year's workshop was new programs designed to encourage newcomers and senior employe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various programs such as lectures and small-group discussion. Five sections of ten-minute lectures were delivered by senior employees under the theme of "My Small Changes Which Change the Future." The lecture session was followed by an active discussion with senior employees.

In addition, a cooking competition was held as a special event. The mission of the night was to cook a soup dish exquisitely matching barbecue. According to the rule of the competition, a pair out of eight participants of each team took turns to finish the cooking within 20 minutes. All the participants were busy moving to complete the mission. Even though the cooking process was not perfect, the dishes were good enough to shine the night.

The highlight of the workshop was "Turn on Change." The participants wrote their personal resolutions on LED balls and made them float on a swimming pool. They shared their resolutions with their colleagues by shouting them out one by one.

This year's workshop gave a great chance for the new employees to release their energy and take a leap forward as a member of Hyundai E&C.



1 개인의 다짐이 적힌 LED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신입사원들. 2 특강으로 신입사원들을 만나고 있는 박동욱 사장. 3 요리를 위해 집중하는 신입사원들. 4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의 폐회사 모습. 5 51명 신입사원의 마음이 담긴 불을 인피너티 풀에 띄웠다. 6 러너 워크숍은 물놀이로 마무리됐다.



2018 신입사원 러너 워크숍 Learner @ Runner

열정을 동력으로 ... 끝없이 배우고, 미래로 나아가라!

2018년 신입사원 51명이 '러너 워크숍'에서 화합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러너 워크숍 프로그램은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배우는 Learner,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Runner로서의 신입사원이라는 컨셉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워크숍은 4일 오후 'CEO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했다.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CEO 특강에서 박동욱 사장은 나폴레옹의 명언을 인용하며 "불행이 언제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면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며 "신입사원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신입사원들은 현대건설의 경쟁력, 현장 중심 경영 등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사장은 각 질문에 핵심답변하게 담담히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생활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생애 첫 단편영화를 만든다

7월 5일, 계동 본사 정문 앞 주차장에 단체복을 입은 수십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였다. 이들의 정제는 2018년 현대건설 신입사원. 편안한 복장을 입어서일까, 서로의 근황에 대해 오랫동안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윽고 신입사원 51명을 태운 버스가 7박2일간의 워크숍이 진행되는 경기도 가평 소재의 캠프톤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러너 워크숍은 '신입사원 영화제'로 그 막이 올랐다. 신입사원들은 '우리가 나아가길'이란 주제 아래 자율적으로 3개 팀을 구성,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촬영, 편집까지 직접 맡아 10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는 3팀의 (지금, 행복하니?)부터 상영됐다. 주인공 성민이 해외현장 근무로 여자친구와 소원해지다 이별하게 되고, 3년 후 공항에서 우연히 헤어진 그녀를 만난다는 내용. 주인공으로 열연한 채성민 사원(토목설계실)은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질 고인도 후회 없는 선택의 중요성을 감성적으로 담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2팀의 영화 제목은 *Gray Zone*. 그레이존이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란 뜻으로 영화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유도 따지기 바쁜 직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행동하는 한 직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리저리 공을 넘기는 탓에 "빨방"에 빠진 직원을 연가한 흥준이 사원(힐스테이트 송도 테러팀 현장)은 "만약 내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많이 당황할 것 같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직원처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내일, 남의 일을 가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1팀의 영화 제목은 (HDEC 시그널) 이번 영화제의 우승작인 이 영화는 2016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의 패러디물로 현장에서 주운 무전기를 통해 과거의 한 신입사원과 현재의 신입사원이 소통한다는 설정이다. 기획부터 장소 섭외까지 다방면에 참여한 권민석 사원(천안 동남구정사 도시재생 현장)은 "결과가 좋아서 더욱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일과 중 쉼 없이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51명 동기 모두가 우승자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입사원, 선배 직원과 소통하다

이번 러너 워크숍이 특별한 이유는 '선배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강연)와 '소그룹 간담회'와 같은 신입사원과 선배 직원 간의 소통 시간이 신설됐다는 점. 영화제가 끝난 후 뷔페식 오찬으로 배를 든 채 신입사원들이 선배 직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세미나실을 배웠다. '미래를 바꾸는 나의 작은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은 5명의 선배 직원이 10분씩 진행했다. 오프닝은 민복기 과장(토목설계실)이 열었다. 민 과장은 10년 전과 현재의 업무 방식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천희 부장대우(국내마케팅팀)는 "신입사원 시기의 업무 태도가 평생의 회사 생활을 좌우한다"면서 회사 생활에서의 태도와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병욱 과장(융복합기술혁신실)은 전문가가 되는 길에 대해 강연했다. 세계 3대 인명사건 중 2곳에 이름을 올린 문 과장은 바람·지진 등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제고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가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희 과장(부산 연신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은 현장 근무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 과장은 "현장 근무자는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누군가 일을 대신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직의 성과가 곧 내 성과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주자진 성지혜 과장(건축기술지원실)은 "소통 능력은 내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소통과 협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의 시간은 선배 직원과의 간담회로 꾸며졌다. 5개 조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선 신입사원들은 회사 생활의 고민거리를 냈다. 선배 직원들은 그간 쌓아온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풀어내며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열정과 패기로 뚝진 18사번 신입사원들!

저녁은 '천하제일 요리대회'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됐다. 미션은 버비큐에 어울리는 국물요리 만들기. 조마다 8명의 선수가 20분 안에 2명씩 팀원이 형식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다. 까다로운 규칙만큼 상품도 최고 등급의 한우와 전복 등 푸짐했다.

신입사원들은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르고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내는 모습이 열광적인 추방정이었다. 요리만 만드는 과정은 어설프었지만 그 맛은 워크숍의 저녁을 빛내기에 충분했다. 1등은 팀워크, 예술성, 맛 평가에서 고된 성적을 얻은 2조(밀피유나베)가 됐다. 2조는 상품으로 받은 한우를 지켜두고 환호성을 질렀다. 2등은 차돌박이 불판행방을 만든 5조가, 3등은 부대찌개를 만든 1조가 받았다. 비록 상품은 받지 못했지만, 요리 대회의 분위기를 즐기는 듯 나머지 조들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했다.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야간에 진행된 'Turn on Change'였다. LED볼에 개개인의 다짐을 적어 인피너티 풀에 띄우는 행사로, 수영장 앞에 선 신입사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큰소리로 자신의 다짐을 동기들에게 외쳤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51명의 마음이 담긴 LED볼을 풀에 띄웠다. 신입사원들은 힘찬 박수를 치며 다시 한번 '천하제일 요리대회'로써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퀴즈미시간에서 신입사원들은 흥겨운 클럽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며 워크숍의 밤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폐회식을 앞두고 '변화실천 Action Plan' 시간이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워크숍 내용을 리뷰하고 '자기 완결형 인재 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러너 워크숍은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본부장은 "조직 속에서 항상 노력하는 인재가 되어 현대건설의 미래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화중 변형은 경계하며, 다양성을 갖춘 신입사원이 될 것"을 주문했다. 신입사원들은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에서 신입사원단의 흥과 개성을 뽐내며 7박2일간의 러너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다.

1박2일 동안 함께 웃고 하나의 꿈을 나누는 신입사원들, '러너 워크숍'은 18사번 새내기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발산하고 '현대건설인'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변화의 중심이자 회사의 미래가 될 2018년 신입사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PEOPLES

러너 워크숍 Zoom in

(사보신론)이 주목할 사람들 미니 인터뷰

요리대회 1등 2조 '밀피유나베' 팀장

"모두가 빨간 국물을 만들 때 저희는 차별화 전략으로 하얀 국수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품이 걸린 요리 대회" 이기에 기쁨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왕이먼 1등이 하고 싶었던거요. 릴레이로 요리를 만드는 중에도 한창의 팀워크를 발휘한 팀원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1등 상품으로 받은 한우도 참 달고 맛있었죠. 이 기쁨을 이어야만 회사의 일도 멋지게 해내고 싶습니다!"

인생 첫 단편영화를 찍은 3명의 감독들

"영화를 촬영하며 배운 것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우들이 스스로 "NG"를 외치며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시나리오·촬영·편집 등 모든 과정이 서툴렀지만 부족한 감독들 지치지않고 팀원들에게 고맙단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3팀 이승민(토목설계실) 2팀 김재원(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전-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현장) 1팀 권민석 사원(송파 헬리오시티 현장).

신입사원들의 '소통과 협업' 내비게이터

"18사번의 패활함과 열정이 보기 좋았고,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워크숍에 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신입사원들과 소통해 보니 그들의 고민이 제가 평소 느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해서 부딪혔고, 선배로서 더 분발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러너 워크숍은 오랜만에 제 자신을 재정의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혜 과장(동해물-기운데)과 간담회를 진행한 신입사원들.





싱가포르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프레이저스 타워) 신축공사 현장 싱가포르의 중심 업무지구인 세실 스트리트에 높이 235m, 지상 38층 규모의 친환경 오피스 빌딩이 위용을 드러냈다. 우리 회사가 38개월 만에 준공한 '프레이저스 타워(Fraser's Tower)'다. 세실 스트리트 지역의 타 오피스 빌딩들과 키를 맞춰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완성한 이 고층 빌딩은 테라스와 포디움 등 휴게 공간을 겸비한 사무·시설과 상업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글=김보나

Hyundai E&C builds skyline of office town in Singapore

Fraser's Tower is standing tall in a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Singapore, about 20 minutes by car from Changi Airport. Hyundai E&C received the Fraser's Tower project from Fraser's Property Aquamarine Trustee, a member of the Fraser's Property Group, to build the office building at Cecil Street.

The Fraser's Tower project is to construct an office building of 38 floors above ground and three basement levels with approximately 78,000 square meters of total floor area. The total construction cost is estimated at 200 million dollars, or about 225.5 billion won. A range of F&B facilities will be located on the first to third floors, and offices on the fifth floor and above. The new building will also have various types of gardens such as parks, terraces and rooftop gardens.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the construction site was to meet the tight construction schedule. From the beginning, the client put greater emphasis on completing the project within the construction schedule. However, the island state is well known for its tight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orks. What's worse, as the construction site was located very next to a top-notch residence building, the city's notoriously stringent regulations on noise control made it almost impossible to work on Sunday and holidays. To advance the construction schedule in all fields of construction, the builder embarked on a variety of construction methods.

Hyundai E&C took a semi top-down approach for basement construction, which allowed the builder to secure structural stability and spaces for above ground construction. It also applied the auto climbing system (ACS) to install elevator structures and looked to post tension applications to build frames, leading to increasing constructability and reducing construction perio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city state requires ever stricter construction supervision, the construction site made efforts to conduct rigorous inspections. The builder had to achieve prior approval from architects with regard to all construction proces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ncrete placement, it was not allowed to exceed the time limit by even five minutes. Thanks to the elaborated quality criteria agreed with supervisors and architects, however, the builder could obtain unparalleled construction quality.

Safety management was flawless as well. All workers strived to serve as a safety manager by sharing even trivial safety issues with each other through a mobile messenger. The construction site held daily tool box meetings (TBM) and weekly safety meetings in order to identify risk factors and deal with them.

The Fraser's Tower will open underground pedestrian walkway to Tanjong Pagar MRT station in coming August. Office workers, tourists who visit the nearby Chinatown area, and visitors to the MRT station are expected to enjoy the seamless connectivity to the new landmark.

Technology
ACS(Auto Climbing System) 공법 등으로 공기 단축
Using ACS to reduce construction period

Ownership
넓은 공기에도 전 공정 최품질 품질 및 안전 관리
Thorough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in all fields of construction

Pride
중대재해 Zero
No major accidents



1 프레이저스 타워 전경, 2 위에서 본 지하층과 지상 공사 모습, 3 정문 입구에 조성된 '퍼크', 4 조경을 위한 포디움 형식의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5 싱가포르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루프 가든'.



싱가포르 오피스 타운의 스카이라인을 완성하다

20년 넘게 쌓아온 탄탄한 신뢰로 수도 성공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20여 분, 홍콩이나 뉴욕 맨해튼의 품격 못지 않은 빌딩숲이 나타난다. 서울의 여의도, 강남, 종로와 비슷한 중심업무지구다. 저마다 높이를 뽐내는 마천루들 사이, '세실 스트리트'와 면한 곳에 우리 회사가 지은 오피스 빌딩 '프레이저스 타워'가 우뚝 서 있다. 알루미늄과 유리가 어우러진 매끈한 외관과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세련된 건물 디자인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의 발주처는 우리 회사와 인연이 깊은 프레이저스 프로퍼티(Fraser's Property, 이하 프레이저스)의 자회사인 'Fraser's Property Aquamarine Trustee'다. 프레이저스 사는 20여 년 전 선택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회사와 처음 만났고, 우리 회사는 지난해 준공한 워터 타운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지력을 선보였다. 기술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 프레이저스의 추천으로 임찰에 참여한 우리 회사는 한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시미즈, 가자미, 오바야시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다.

이 빌딩은 지하 3층-지상 38층의 연면적 약 7만8000여㎡, 공사금액 2억 달러(약 2255억원) 규모다.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총 1082%)를 따냈다. 지상 1-3층에는 F&B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5층부터 사무실로 사용된다. 파크와 오아시스, 테라스 그리고 하늘에 맞닿은 루프 가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과 곳곳에 자리한다. 프레이저스의 본사도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에 우리 회사는 최고의 오피스 빌딩을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험난했던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에서의 공사

우리 회사는 2015년 4월, 터파기와 구조 공사에 착수했다. 흔한 오피스 빌딩 공사라 생각하기 쉽지만, 갈보기와 달리 프레이저스 타워 시공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빠듯한 공기였다. 임찰 당시부터 발주처가 가장 힘주어 당부한 것이 바로 공기 내 준공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건설 공사 규제가 심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프레이저스 타워 바로 옆 건물에 최고급 거주시설이 자리해 소음 규정이 엄격했고, 이 때문에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 공사 가능 일수가 타 현장보다 훨씬 적었던 셈이다. 우리 회사는 모든 공정에 걸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했다.

지하층 공사에는 세미 톱 다운(Top-Down) 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지상층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 벽체를 세우는 코어 공사에는 ACS(Auto Climbing System) 공법을 사용했다. ACS 공법은 거푸집 작업을 위한 발판인 시스템 폼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작업이

가능하다. 거푸집 교체가 필요 없고 타설 후 다음 층까지 유압 시스템으로 인양되기에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다. 골조 공정에서는 포스트텐션(Post Tension)공법을 택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에 강연선(케이בל)을 심은 후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 케이בל을 당겨 고정하는 방법이다. 보통 정착장(강연선의 한쪽 끝)을 벽체에 같이 심어 후작업이 발생하는데, 현장은 설계를 변경해 정착장을 벽 바깥으로 꺼내 시공성도 높이고 공기 단축 효과도 얻었다.

준공을 앞두고는 지하층, 지상층, 지붕 등 여러 구역에서 다양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공사 프로세스 및 공사 구역을 조율하는 미팅이 매일 실시됐다. 갖은 노력의 결과로 현장은 우리나라의 사용 승인에 해당하는 TOP(Temporary Occupation Permit)을 발주처와 약속한 5월 31일에 획득할 수 있었다. 전날 갑작스러운 BCA(싱가포르 건설청)의 추가 작업 요청으로 철야 작업까지 불사한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유례없는 꼼꼼한 시공으로 최고의 품질 완성

싱가포르의 공사 관리감독이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의 감리는 매우 엄격했다. 현지 직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시공 방법과 디테일, 검측 등 모든 과정에서 설계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단 5분의 기준 시간 초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리사와 설계사, 우리 회사가 협의한 꼼꼼한 기준 덕분에 품질만큼은 어떤 프로젝트와 견주어도 좋을 만큼 뛰어나다. 한 예로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를 실은 트럭을 일일이 살펴 강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강도 테스트에서 단 한 건의 불합격도 나오지 않았다.

안전 관리 또한 빈틈이 없었다. 모든 공정에 작업 허가를 철저히 받아 시공했으며, 전 직원이 안전 관리자가 돼 서로를 이송한다.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했다. 매일 TBM(Tool Box Meeting)과 매주 안전 미팅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의 공사 중단도 없이 TOP를 획득했다.

현재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은 입주업체 및 프레이저스 시설관리팀을 대상으로 인수인계 중이다. 건물 곳곳에는 입주자들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8월 내에는 Tanjong Pagar MRT(지하철) 역과 건물이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개통된다.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면 직장인들뿐 아니라 인근의 젊은이들이 찾은 관광 명소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이저스 타워가 직장인들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오피스 빌딩이자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휴식 공간, 관광객을 이끄는 싱가포르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Interview

공기 내 준공을 가능하게 한 멀티 플레이어 공사팀장 김장욱 부장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은 도심 한가운데, 고급 레지던스와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어 활용 가능 부지가 좁고 공사 제약이 매우 많았다. 김장욱 부장은 직원들은 물론 행인들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하면서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공정 간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체 공정의 실행 계획을 짜고 시간대별, 일별 관리해 마일스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프레이저스 타워 준공으로 한층 더 실과 싱가포르 협력업체들의 파트너십도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규제 상향을 다룬 현장의 애걸사 설비팀장 신원재 부장대우

신원재 부장대우는 이번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에서 10년이 넘는 싱가포르 근무 경험을 충분히 발휘했다. 준공공사 기간 중 갑작스럽게 새로운 배관 관련 규제가 도입됐을 때, 신원재 부장대우는 담당 관공서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았다.

"규제 변경 이후 고층 건물로는 처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해 기한 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현장 사례가 차후 싱가포르 내 모든 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도해 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 드림, 이제는 후배들을 잘 이끄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일 코디네이션을 보여준 조율사 설계팀 이창호 과장

설계를 실제 건축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 사항과 공중 및 업체들의 필요조건에 맞춰 변경하는 역할이 바로 설계팀의 역할이다. 이창호 과장은 이번 현장 첫 현장 근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던 부분을 시공 순서에 맞게 미리 조율해 공사를 수월하게 이끌었다.

"도면상의 오류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많은 리뷰와 회의를 거쳤습니다. TOP 3개월 전만 해도 현장의 공정 및 통상적인 싱가포르 기관의 일정으로 봤을 때 5월 안에 TOP를 획득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의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해냈습니다."

신뢰로 협업을 이끌어낸 협상가 공무팀 EPILEPSIA REAGAN CEPEDA(Senior QS)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11년 차인 Reagan Senior QS(Quantity Surveyor)는 싱가포르 서우서비스 북항개발 현장을 비롯한 굵직한 현장 경험을 자랑한다. 이번 현장에서 발주처 대상 설계 변경, 기성 청구, 협력사 선정 등의 원가관리를 담당했다.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my job is to build trust with both the QS Subcontractors and QS consultant. But once I gained their trust my works become easier. The project team has built a good team works and with the good leadership of Korean Managers, the project was able to obtain the TOP without any delay."





휘청한 일본 100년 기업 4차 산업혁명 총아로 재조명받다

해외 기업 탐방 ⑤코마츠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로 위기에 봉착했던 세계 2위의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 코마츠가 최근 엔고에도 불구하고 매출 2조 5000억 엔, 영업이익 2715억 엔으로 모두 과거 최대치에 근접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서도 재조명받고 있는 코마츠. 코마츠의 변신 뒤에 숨어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글=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사진출처= Wikipedia Japan

여는 일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코마츠도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와 장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IT 버블 붕괴는 코마츠의 경영위기를 불러왔다. 1921년 설립된 코마츠는 전신인 코마츠철공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도 더 된 기업이다. 코마츠의 경영위기는 1960년대 캐터필러의 일본 진출에 맞서 약 40년간 IT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 실패의 영향이 컸다. 1960년 실리컨 제조 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액정 패널 제조장치 사업에 이르기까지 IT 제조 분야에 적극 투자해 왔으나, IT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르는 관련 사업 부실로 위기에 봉착했다.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위기 극복의 핵심? 고객 입장에서의 혁신!

코마츠를 사지에서 구해낸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한 기계 이동 관리 시스템 '콤포트랙스(Komtrax)'다. 콤포트랙스는 코마츠가 생산·판매한 건설기계에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안테나와 통신시스템을 부착해 위치 정보와 각종 센서, 컨트롤러가 생성하는 정보를 원격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코마츠는 이 시스템으로 모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고객과 판매대리점에 무상 제공한다. 콤포트랙스는 2001년부터 표준 장비화돼 지금은 20만 대 이상의 코마츠 건설기계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 콤포트랙스는 코마츠가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매우 비쌀 뿐 아니라 운용비용이 매입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높은 가동률, 낮은 고장률과 함께 안전한 자산관리 여부

가 구매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건설기계 도난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심지어 도난당한 건설기계도 현금자동지급기나 패밀리 레스토랑, 슈퍼마켓 절도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대응하려고 개발한 것이 바로 콤포트랙스다.

콤포트랙스는 원격조종을 통해 엔진을 제어할 수 있어 도난이 예방되고, 혹시 도난당했다더라도 추적이 가능해 고객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기계 엔진 이외의 각 부분에 부착된 센서 등에서 얻은 정보로 건설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보수 시기를 예측해 운용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접근성이 나쁜 오지의 건설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 날 경우 부품 조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콤포트랙스 이용 전 건설기계 가동률은 40%인 데 반해 이용 후에는 80%로 2배 상승했다.

콤포트랙스는 중고 거래 시에도 용이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할 경우, 매도자가 아무리 무하자를 보장해도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코마츠의 건설기계는 콤포트랙스 덕분에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매도자는 다른 중고 건설기계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고 매입자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경쟁력 유지 노력

콤포트랙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건설기계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해 이를 실시간으로 코마츠와 납



코마츠 세계 2위 건설기계 제조사

- 본사 도쿄 직원 4만7200명
- CEO 오하시 테쓰지
- 1917 다케우치광업의 광업 장비 제작 부문으로 출발
- 1921 다케우치광업에서 분사
- 1931 日 최초 무한궤도 트랙터 개발
- 1955 건설 장비를 처음으로 수출
- 1985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 설립
- 2008 세계 첫 자율 수송 시스템(AHS) 출시
- 2016 美 건설 장비업체 조이글로벌 3조3000억원에 인수

1 울트라 클래스 트럭 930E. ©Gamera866 2 코마츠 건물. ©妖精書士 3 코마츠 건설기계의 엔진 모습. ©Shift 5 볼도저 61PX. ©BTR

품업체, 판매 대리점,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마츠의 건설기계가 세계 곳곳에 최대한 많이 공급되도록 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추진된 것이 '단토츠 프로젝트'다. '단토츠'는 한자인 '단연(斷然)'과 영문 'Top'의 합성어. 단토츠 프로젝트는 단연코 선두, 즉 압도적 1위를 위한 코마츠의 상품 개발 전략을 말한다. 단토츠 상품은 제조원가를 10% 이상 낮추면서도 경쟁사들이 적어도 3년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선진성을 지녔다. 또 환경과 안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에 특화됐다.

환경 측면에서는 2008년에 발매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유압 쇼벨(Hydraulic Shovel)이 대표적인 단토츠 상품이다. 이전 기계보다 25%나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2005년 남미의 칠레 북부 광산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무인 덤프트럭 운행 시스템(AHS·Autonomous Haulage System)은 ICT를 활용한다. GPS는 물론 장애물 탐지 센서, 각종 컨트롤러, 무선네트워크 등 최첨단 ICT 기능을 탑재해 중앙관제실에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혹한 근무 환경 탓에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호주 서부 광산에 적용되는 등 15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토목 업계는 전체 노동력뿐 아니라 숙련노동자가 급감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도 동시에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5년 도입된 코마츠의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사업이다. 드론, 3D 레이저 스캐너, 스테레오 카메라 등 각종 ICT 기술을 이용해 측량,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이런 단토츠 상품들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코마츠의 주력 핵심 상품군으로 성장했다.

결국은 데이터 경영

코마츠의 성장 동력에는 데이터 경영 전략이 숨어 있다. 콤포트랙스는 ICT 장비와 IoT를 활용해 얻은 건설기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수집과 분석)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이는 단토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부피가 큰 건설기계의 경우, 전체 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엔진이나 송풍 팬처럼 부분별 소음 개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마츠는 건설기계 전체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음향실을 만들어 건설기계 내부에 전체 소음과 그 원인이 되는 부분별 소음을 데이터화했다. 코마츠의 건설기계는 저소음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연비 개선도 마찬가지다. 각종 최신 예측장비를 도입해 엔진 성능은 물론 동력 전달, 연료 효율성 등 연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분석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도 코마츠는 데이터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한다. "개발이든 판매든 데이터화해 팩트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개선 아이디어는 꼭 생깁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든 팩트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중간한 결과만 나와요. 결국 사실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경영의 질이나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납니다"라고.

피플 인사이드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아기 해달 ‘보노보노’.
귀여운 외모와 순수함을 지닌 이 만화 캐릭터는 지난 33년간 아이와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에게는 귀엽고 재미있는 동물 만화로,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삶의 성찰을 전하는 철학 만화로 읽히는 <보노보노>. 그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를 만났다.
글=노진호 <중앙일보> 기자 /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SMC 제공



©MIKIO IGARASHI/TAKE SHOBO,FUJI TELEVISION, EIKEN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보노보노

일본 만화 ‘보노보노’는 참 심심한 만화다. 좁쌀처럼 작은 눈을 가진 해달 보노보노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 당황할 때 그저 뺨을 흘릴 뿐, 웬만한 선 화도 내지 않는다. 극적인 사건이 있느냐고? 그것도 아니다. 다소 폭력적인 캐릭터 ‘너부리’가 등장하지만, 그저 ‘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란 질문처럼 뜬구름 잡듯 주변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주인공 보노보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주효 이야기다.

이 심심한 만화가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방한한 보노보노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63) 작가를 6월 11일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가라시 작가는 “대부분 만화의 주인공이 ‘자기부정’을 통해 힘이 세지거나, 발전하는 등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보노보노는 그런 게 없다. 그게 마음에 속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풀이하자면, 구태여 성장하지 않고 또 ‘그래도 괜찮다’고 반복해 얘기하는 보노보노가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였다. 만화 ‘보노보노’는 실제로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계속해 얘기한다. ‘가수가 되고 싶다’고 노래하는 보노보노의 다람쥐 친구 ‘포로리’에게 또 다른 ‘너구리’ 친구 ‘너부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되고 싶은 거 딱히 없어, 난 나야. 너는 지금 너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무언가가 되고 싶은 거야.”

따뜻하면서 친근한 만화

‘보노보노’는 현재까지 33년째 연재 중이다. 4컷, 8컷 만화를 묶어 120여 쪽 정도의 만화책으로 출판하는데, 1986년 처음 시작한 이후로 매년 1~2권씩 책이 나와 현재는 42권까지 나왔다. 국내에는 20권(거북이북스)까지 출판됐다. 이가라시 작가는 “30년 넘게 연재할 줄 몰랐다. 나 스스로 ‘보노보노’에 질리지 않기 위해 내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왔는데, 어느덧 자전적인 만화가 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할 당시 나도 30대였는데 당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친근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노보노’라는 제목도 따스함을 뜻하는 일본어 ‘호노보노(ほのぼの)’에서 따왔다. 이가라시 작가는 “호노보노 글자에 ‘탁점’을 찍으면 보노보노(ぼのぼの)가 된다”며 “편안한 만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존의 단어에 점만 찍어 친숙하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이가라시 작가는 네 컷 만화를 직접 그려가

<보노보노> 작가 이가라시 미키오

**“애쓰지 마세요.
그대로도 괜찮아요”**



©MIKIO IGARASHI/TAKE SHOBO,FUJI TELEVISION, EIKEN

보노보노
일본의 인기 만화
<보노보노>는 귀여운 아기해달 보노보노와 숲속 친구들이 겪는 이야기다. 1986년 일본에서 연재를 시작한 전 세계 1000만 부 발행, 30년 넘는 장기연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만화책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각색되기도 하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며 설명했다. 보노보노를 그리는 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보노보노의 그림체는 단순하다. 이가라시 작가는 “쉽게 그릴 수 있게 일부러 단순하게 표현했다. 그래야 혼자 있을 때 그려볼 텐데, 자신이 한 번 그려본 작품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른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

‘보노보노’의 또 다른 별칭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호기심 많은 보노보노가 솔한 질문을 던지며 친구들을 괴롭히지만, 그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식이다. 하루는 보노보노가 묻는다. “어째서 즐거운 일은 끝나는 거죠?” 그러자 숲에서 가장 영리한 야옹이형은 답한다. “해님이 지고 밤이 오고 다시 해님이 뜨고 아침이 오듯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끝나기 위해서 즐거운 일이 끝나는 거란다.”

이가라시 작가는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듣고 읽고 겪었던 삶에서 자연스럽게 대시들이 나온다”며 “나는 특히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큰곰 대장의 말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옹이형’이 나타나기 전 숲의 대장 노릇을 했던 큰곰 대장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탐비는 야옹이형에게 “내가 졌다”며 이렇게 말한다. “살아가는 생물은 그저 살아가는 게 전부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바보 같은 동물이 된다.” 이가라시 작가는 “필사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누군가와와의 조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뿐”이라고 말했다.

이가라시 작가는 특히 1권의 첫 에피소드를 추천했다. “‘보노보노’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했다. 내용은 이렇다.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보노보노가 그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다. 그러다 물속 기둥에 몸이 걸린다. 보노보노는 구태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기둥에 걸려 몸이 돌아가고, 어느 순간 다시 물을 따라 흘러간다. 이가라시 작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젊은이들에게 힘든 시기다. 사회가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그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거창한 꿈이나 하고픈 일, 성장이나 발전이 없이 그 자체로도 괜찮다는 걸 보노보노는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가라시 작가가 남긴 말이다.

“지금 있는 것도 머지않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없어질 것도 지금은 여기 있기도 하고요. 뽀족한 해답이란 건 원래 없을지 몰라요. 애쓰며 고민하지 말고, 그저 흘러보내는 게 어떨까요. 흘러가지만 그건 결국 쌓여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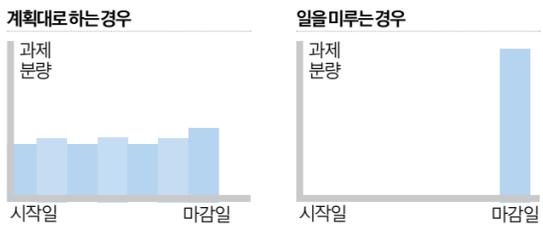


강연 동영상 보기

Ted 강연 ⑤ 팀 어번 18분 안에 세계 지식이 공유되는 무대 Ted 강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 호 <사보신문>에서는 할 일 미루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실행력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신동인 『강연 읽는시간』 저자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연초에 야심 차게 계획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기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내일부터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편하고 쉽고 재밌기를 위해 빈둥거리다가 마감을 하루 앞두고 벼락치기로 일을 해낸 경험이 다를 것 같다.



벼락치기가 분명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마감일이 있는 경우엔 문제가 심각하진 않다. 미루기의 진짜 문제는 프리랜서, 예술가처럼 스스로 일을 설계해야 하는 경우나 인간관계 챙기기, 건강 돌보기처럼 정해진 기한이 없는 일들을 해야 할 때 생긴다. 특히 미루는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는 유일한 기제가 마감 같은 외부 자극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스스로는 마감일이 오기 전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루는 습관이 만성화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루는 심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팀 어번(Tim Urban)의 강연을 들어보자.

일을 미루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일까?

미루기의 제대로 된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 보자. 팀 어번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일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는 '합리적 결정자(Rational Decision-Maker)'와 매 순간을 즐기는 '만족 원숭이(Instant Gratification Monkey)', 기한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패닉 몬스터(Panic Monster)'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는 패닉 몬스터가 깨어 있지 않아 합리적 결정자보다 욕구가 강한 만족 원숭이가 모든 일을 미루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혹시 지금도 몸은 빈둥거리면서 머리는 끊임없이 '게으른 인간. 이렇게 나태해서 대체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 않은가?

미루지 않는 사람의 뇌구조 vs 미루는 사람의 뇌구조



미루는 습관을 멈추려면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흔히 미루는 것을 게으름 혹은 정신력의 부족, 무능함과 연결시킨다. 이것은 미루기에 대한 깊은 오해일 뿐이다. 동기유발 전문가인 멜 로빈스(Mel Robbins)는 미루기를 게으름, 의지력 부족이 아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고 우리가 미루고 있는 무언가를 '일' 자체라기보다 '그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미루기를 나태함이 아닌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린다 사파딘(Linda Sapadin)은 일을 미루는 사람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일을 미루는 사람의 6가지 유형

완벽주의자 The Perfectionist	몽상가 The dreamer	걱정꾼 The worrier
높은 기대감을 걱정하는 스타일로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음	탁월한 기획력과 계획력이 있지만 앉아서 일하는 것에 쉽게 지치는 스타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에 저항하고 결정을 회피하는 스타일
위기의 제작자 The crisis-maker	반항자 The defier	바쁜 사람 The overdoer
마지막 순간의 아드레날린 폭주를 즐기고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는 스타일	외부(마감, 기대감)에 저항하는 스타일로 때때로 적대감을 표출함	거절하지 못해 많은 일을 하는 스타일. 그 결과 충분한 시간이 없음

우리는 각자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완벽을 추구해서,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을까?

미루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미루기를 무능함과 게으름으로 연결시켜 스스로 닦아주는 대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통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기통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석 달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은 헬스장에 갈 것이라 생각해 3개월 회원권을 끊는다든가, 아침잠을 줄이고 영어회화 학원을 다닐 것이라며 새벽반에 등록하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분명한 갭이 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사이에 '자기통제'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생에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다르게 행동한다고 경제학자 댄 애리얼리(Dan Ariely)는 말한다. 그러나 미룬다고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자.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제 전략 활용법을 기억해 실천하면 된다.

자기통제력을 향상하는 두 가지 방법

먼저 자기통제를 잘 보여주는 마시멜로 테스트를 살펴보자. 월터 미셸(Walter Mischel)은 4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는 실험을 한다. 조교가

방을 떠나자 3분의 2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혹을 극복해 두 개의 마시멜로를 얻는데 성공한다. 놀랍게도 두 집단에서 나타난 뚜렷한 차이점은 의지력이 아닌 '지각'에 있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계속 쳐다봤고,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탁자 위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유혹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충동을 참는 것이 의지와 이성적 판단이 아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지각의 차이임을 보여준다. 핸드폰으로 SNS나 게임을 하면서 일을 미루지 않기란 쉽지 않다. 차라리 이럴 때는 핸드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거나 강제로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앱(App)을 이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방법들이지만 일상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간 중간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하는 것이다. '보상 대체(Reward-substitution)'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작더라도 즉각적인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스스로를 동기화해 보자.

인생의 꿈,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통제는 필수적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 움직여야만 한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던 각자에게 맞는 것을 찾아 일상에 적용해 보자. 자극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통제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컨트롤러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팀 어번(Tim Urban)



미국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인터넷 작가 중 한 명으로 <Wait But Why>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심리와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며 수백만 페이지 뷰를 달성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수천 명의 팬을 확보한 그는 2016년 Ted 강연에 처음으로 초청돼 '미루는 사람의 심리' 강연을 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계동산책 합성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전통 팔빙수를 맛볼 수 있는 북촌빙수.
글=강은비 / 사진=이슬기

무더위 사르르 녹일 북촌빙수



1 자몽이 한가득 올라간 자몽빙수, 1만 9000원. 2 한옥의 멋을 살린 내부 전경.
3 직접내린 원두로 만든 커피빙수, 1만 3500원. 4 정성 가득한 전통팔빙수, 8500원.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빙수 맛집이 있다. 삼청동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북촌빙수'가 바로 그곳. 5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의 비결은 바로 좋은 원재료다.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팔과 신선한 우유로 빙수를 만들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빙수 전문점답게 총 11종을 맛볼 수 있는 북촌빙수의 대표 메뉴는 단연 팔빙수다. 지리산 산청에서 공수한 햇팔로 사장 지인이 직접 농사한 작물이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또



한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 유기농 설탕으로 매일 팔조림을 만들어 텁텁한 뒷맛 대신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팔을 싫어하거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과일 빙수도 있다. 요즘 SNS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자몽빙수는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다. 특히 이곳만의 특별한 방법을 거쳐 이틀간 숙성해 자몽 자체의 씹쓸한 맛이 완화된게 특징. 그래서인지 자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빙수는 맛있게 먹었다고 후기를 남길 정도다.

또 다른 맛 비결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섞지 않고 100% 우유만을 사용해 만든 얼음이다.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진한 우유 맛이 일품이라 외국인들마저 부드러운 식감에 "Best"를 외치며 칭찬한다고.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녹그릇 역시 먹는 동안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게 배려한 북촌빙수만의 노하우다

북촌빙수

주소 서울 중로구 삼청로 71-5
영업시간 11시~22시 (재료 소진 시 영업 마감)
문의 02-720-8233

현대 味술랭가이드



박유영 대리
★★★★☆ 4/5점
평상시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이곳 커피빙수는 자꾸 손이 가네요! 회사에서 거리가 조금 있지만 원두향이 가득한 커피빙수를 먹고 싶다면 이곳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수정 대리
★★★★☆ 4.5/5점
다른 곳의 팔빙수와 비교불가예요! 특히 팔조림이 적당히 달면서 텁텁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평소 팔의 텁텁한 뒷맛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곳 팔빙수를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김옴 대리
★★★★☆ 4.5/5점
더운 날씨에 지쳤는데 시원한 빙수 한 숟가락에 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아끼지 않은 푸짐한 자몽 양에 감동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빙수를 찾으셨다면 이곳이 진리예요!



일상 안전매뉴얼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속 안전의식을 높여보자.

산 넘고 물 건널 때 안전하도록, 해외여행 안전 편

1 출발 전 '경보단계' 확인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최신 안전 소식을 확인하자. 해당 지역 여행에 예방접종과 건강 정보도 확인해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행하자.



2 전지전능 여행 필수품 '상비약'

일회용 밴드,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을 준비하자. 평상시 복용 중인 약도 잊지 말고 넉넉히 챙기자. 처방약이 있다면 영문으로 된 처방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3 대리운반 댁츠노노

다른 사람의 수하물은 절대 대신 옮겨주지 말자. 자신도 모르게 국제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4 먹는 물은 생수로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수도물을 마시다가는 배탈 또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생수는 사서 마시고 병뚜개가 제대로 봉인돼 있는지 꼭 확인하자.



5 아무거나 받지 말자

여행 중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을 주의하자. 호의 뒤에는 소매치기나 사기 등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하자.



6 무엇이든 신고하자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분실신고부터 하자. 곧장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증명서를 만들고 재외공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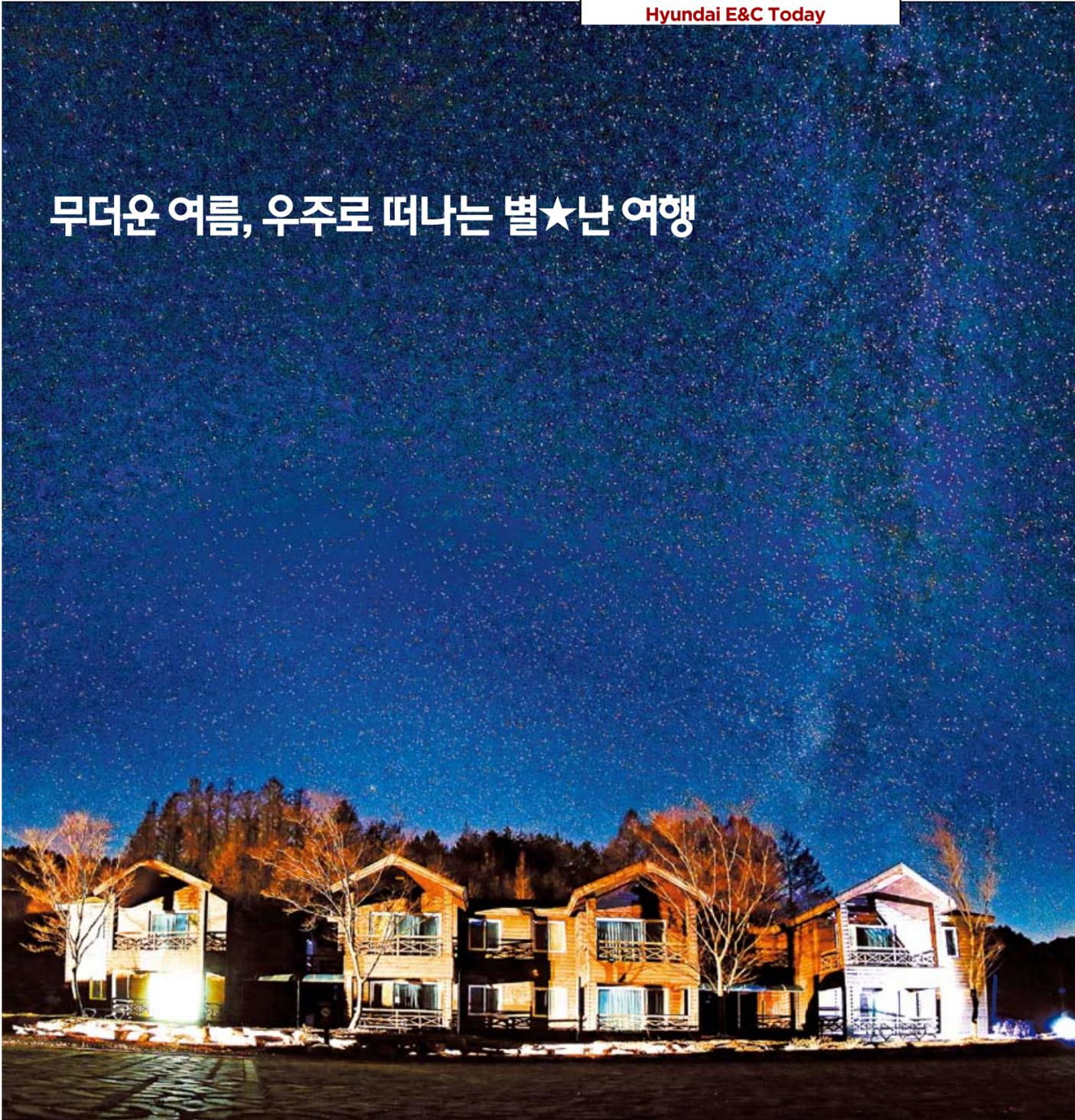


TIP 해외여행 시 꼭 챙겨야 할 '매너'

- 1 용, 그거 도와지 아니야**
낙서하지 말자. 우리 문화재가 소중한듯 다른 나라 문화재도 소중한다. 낙서하다 적발 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제발 낙서하지 말자.
- 2 용, 손님은 왕이 아니야**
손님은 반가운 사람일 뿐, 왕이 아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이 왕인 줄 아는 한국인 여행객이 많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 3 용, 지금 그릇이 아니야**
여행지에서도 'TPO'를 지키자. 종교 건축물이나 명소에서 반바지나 샌들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아보는 센스를 발휘하자.
- 4 용, 너 지금 별로야**
고성방가, 지나친 음주기우, 쓰레기 무단 투기는 어디서나 민폐다. '언제 또 오겠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 이란 생각을 가지고 Korean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출처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http://osafe.kr/>)
COPYRIGHT © 2014 SAFETY DESIGN LAB. OSAFE

무더운 여름, 우주로 떠나는 별★난 여행



후텁지근한 날씨의 연속이다. 도심의 열대야를 피하고 싶다면 별★난 여행을 떠나보자. 탁트인 자연 속에서 밤하늘의 은하수와 함께 별을 보면 무더위는 완전히 잊게 된다. 산 정상에 있는 한여름에도 춥지 마라. 두툼한 옷과 돛자리는 필수다.
정리=황선영 /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산산한 별밤에 영양가 있는 가족여행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경북 영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밤이 어두운 곳이다. 이곳에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반딧불이 천문대'가 있다.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 위치한 반딧불이 천문대에는 태양망원경이 있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하고, 밤에는 행성과 성운, 은하, 달을 관찰할 수 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과 반딧불이 천문대는 여름 은하수와 별 관측 외에도 반딧불이 탐사를 할 수 있어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가 생태공원 일대에 서식하고 있어 밤이면 칠흑같은 여름 속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을 볼 수 있다. 낮에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좋은 수계곡 여행도 곁들일 수 있다.
문의 영양 반딧불이천문대 054-680-5332

여름철 낭만여행, '제주의 별 예는 밤'

마방목지, 1100고지 휴게소, 새별오름

맑은 밤이면 제주 어디서나 별을 만날 수 있지만, 그중에도 '마방목지'와 '1100고지 휴게소'가 별구경 명당이다. 5·16도로에 위치한 마방목지는 제주축산진흥원이 관리하는 초원이다. 낮에는 말의 풀을 뜯는 풍경이, 밤에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은하수가 펼쳐진다. 마방목지는 제주시에서 그리 멀지 않고, 주차장도 널찍해 여유롭게 별을 볼 수 있다.

사진가들이 손꼽는 제주 별구경 명당은 1100고지 휴게소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이곳은 제주와 서귀포를 오가는 자동차로 분주한 낮과 달리 밤이 되면 한없이 고요하다. 별뿔뿔이 떨어지는 모습은 물론 은하수도 볼 수 있다. 단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굽이굽이 올라야 하므로 운전이 주의하자.

제주에서 별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장소가 '새별오름'이다. 이름만 들어도 별이 떠오르는 이곳은 저녁 하늘에 외롭게 떠 있는 새별 같다고 해서 '새별'이라는 양중맞은 이름이 붙었다. 정상까지는 길이 잘 정비돼 있어 30분이면 도착한다. 사방에 거칠 것이 없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문의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밤하늘의 별이 된 '아폴로 박사'를 만나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

강원도 화천에는 '아폴로 박사'로 유명한 조경철 박사를 기리는 '조경철 천문대'가 있다. 해발 1010m에 위치해 광해, 운무 등이 없어 밤하늘을 관측하는 데 최적지다. 이곳의 망원경은 일반인이 방문 가능한 천문대 중 국내 최대 크기(직경 1m)를 자랑한다.

조경철 천문대는 천문·우주전시실, 플라네타리움과 함께 강연,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일 오후 8시부터 천문학을 유쾌하게 설명하는 강연과 밤 11시에 시작하는 '심야관측' 프로그램이 인기다. 날씨가 맑은 날, 밤새 성단, 성운을 관측하는 '심야관측' 프로그램은 가슴 설레는 별빛 여행의 백미다. 이외에도 관측기법을 익히는 별사진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실습 과정도 준비돼 있다. 밤하늘과 천체 관측은 날씨와 달이 중요한 요소니, 천문대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 후 참가하는 것이 좋다. 문의 화천 조경철 천문대 033-818-1929